

혈액투석 환자에서의 Pleural Effusion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연구소

이영기 · 노정우 · 김은정 · 김수진 · 박태진 · 오지은 · 윤종우 · 구자룡 · 김형직

목적 : 혈액투석을 받는 말기 신질환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pleural effusion이 발생한다. 그 중 체액 과다나 심장 질환에 의한 pleural effusion이 대표적이지만, 요독증 자체에 의한 uremic pleurisy도 혈액투석 환자에서 동반할 수 있다. Uremic pleurisy는 주로 chronic fibrinoid pleuritis로 나타나며 sterile exudate의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임상 양상이나 발생 기전은 분명치 않다. 저자들은 유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동반되는 pleural effusion의 빈도와 원인, 임상 양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여 pleural effusion을 조사하였다. Pleural effusion의 양이 많은 환자에서는 초여과량을 늘려 혈액투석을 하였고, 반응이 없는 경우 흉수 천자를 시행하였다.

결과 :

1) 전체 대상 환자 89명 중 18명의 환자 (20.2%)에서 pleural effusion이 관찰되었다. 발생 원인에 따라 나누었을 때, 심장 질환에 의한 경우가 6명 (33.3%), uremic pleurisy 7명 (38.8%), parapneumonic effusion 3명 (16.7%), 무기폐 1명, 간경화증 1명 (5.5%)이었다.

2) Pleural effusion은 양측성이 10명 (58.8%), 편측성이 7명 (41.2%)이었는데, 심장 질환에 의한 effusion은 모두 양측성, parapneumonic effusion은 모두 편측성이었고, uremic pleurisy는 양측성 4명, 편측성 3명이었다. 폐부종은 심장 질환에 의한 pleural effusion 환자 중 5명 (83.3%)에서 동반되었으나, uremic pleurisy와 parapneumonic effusion에서는 각각 2명 (28.6%)과 1명 (33.3%)에서만 나타났다. 심비대는 심장 질환에 의한 pleural effusion 환자와 uremic pleurisy 환자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나, parapneumonic effusion 환자에서는 동반되지 않았다.

3) Uremic pleurisy 환자 7명에서 흉수 천자를 시행한 결과 3명에서 exudate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명은 2주 이후에 반복 천자를 시행하였을 때 초기에 transudate에서 나중에 exudate로 변화하였다. 관찰 기간 동안의 임상 경과를 보면 2명의 환자는 pleural effusion이 소실되었으나 4명은 effusion 양이 약간 감소하였고, 1명의 환자는 흉막유착술 (pleurodesis)을 시행하였으나 재발하였다.

결론 : 혈액투석 환자에서 pleural effusion이 동반되었을 때, 심장 질환 이외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effusion을 감별해야 하며, 흉수 천자에서 transudate로 나타난 경우에도 uremic pleurisy의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